

## 5월 선교서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파라과이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간구로 동역하는 '성광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을 드립니다.

### 1)'쁘리멜 아몰 교회'

지난해 강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회 주변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여 살게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발렌티나' 자매는 당뇨로 인하여 손발이 타들어 갔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딸과 함께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아나' 자매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는데 주일날 기도를 받은뒤 스스로 약을 끊어버리고 매주 집에서 30~40분 걸리는 교회까지 걸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쓰빠리나' 자매는 초창기부터 교회에 나온 성도이나 그 동안 제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강물의 범람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온 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도 함께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이웃 자매까지 전도를 하여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리아카를 끌며 폐품을 줍는 '에우세비아' 자매는 수년 전부터 가끔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머느리까지 전도하여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의 사역 기간동안 고침의 역사는 주님께서 필요때마다 이루셨습니다. 5년전쯤, 병원에서 개복 수술로 아이를 낳은뒤 이유없이 열이나고 먹으면 토하여 의사조차 이유를 찾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죽기 직전의 자매를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번은 에이즈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청년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리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한 두번 교회에 나오다가도 대부분 다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럴지가 않습니다. 3년전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기에 힘쓰고 있고 중고등 학교 건축 감독을 하느라 심방이나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도들 스스로 가족이나 이웃을 전도하여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은 그 동안의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적 성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하는 부흥을 위해 주님의 동역자로서 중보 기도를 힘쓰기 원합니다,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하나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분을 더 집중하여 찾고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2)제1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지난 2월말 '제1회 현지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4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여 1박 2일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주제로 제가 강사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제1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것은 현재 파라과이 '카톨릭 신부회'에서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현지인 '목회자 협의회 임원'과 목회자들을 매수하여 성찬식때 신부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식을 할 중용하고 있고 적지않은 목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 3)'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 고등학교' 건축

지난해 1월 시작된 '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 고등학교' 건축 공사는 그 동안 일군을 구하기 어려운 등 여러가지 일로 공사가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미장 공사를 마치고 이어서 바닥 공사와 창문 그리고 페인트 공사를 하면 2층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에 중학생을 모집코자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금년에도 교실이 부족하여 현재 5학년과 6학년 오후반 어린이들이 예배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이 완성되는 대로 3층도 계속하여 교실을 지어야 내년에 중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한 건축금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 4)영어 집중반 코스

수년 전부터 꿈꾸고 기도해 오던 '아메리카 미션 스쿨 영어 집중반 코스'가 드디어 3월초에 시작 되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 반정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인데 현재 14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금년 2월 한국에서 처남댁이 외국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한국에 혼자 두고 아이(2학년)와 함께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역하던 단기 선교사가 후속 선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철수하여 남 선교사가 대신 일을 감당하느라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교서신을 받은뒤 감동을 받고 남편(처남)과 함께 기도한 뒤 1년간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 아이들이 몰라보게 영어 실력이 늘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성광 교회의 초청으로 두명의 어린이가 2주간 미국에 가게되는데 ‘로미나’와 ‘미카엘라’가 선발되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5)미래 크리스찬 리더 인재 양성 교육

영어 집중반 코스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파라과이 전 지역에 광고하여 머리가 뛰어나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영어 공부를 시켜 파라과이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와서 파라과이를 변화시키는 실력과 신앙을 갖춘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고 숙련된 영어 교사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등 정착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파라과이의 내일의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 양성을 위한 ‘미래의 리더 인재 양성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신으로(영어 교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중고등 학교 건축, 목회자 부부세미나, 영어 집중반 교육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교육’등 모두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때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성광 교회’와 그리고 이 땅 파라과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며  
남미 파라과이에서 김정훈 남영자 선교사 드림

### <기도 제목>

- 1.김정훈 남영자 선교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 3층 건축에 필요한 건축금을 위하여
- 3.’아메리칸 미션 스쿨 영어 집중반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교사 수급을 위하여
- 4.동역할 단기 선교사를 위하여(학교 및 영어 교사 사역)
- 5.’쁘리멜 아몰 교회’와 지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갈망함이 부어지도록
- 6.파라과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 7.’현지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이 땅에 참다운 복음이 전파되도록.